

【 해외금융 뉴스: 중국 】

AIA생명, 홍콩 증시상장 임박

- AIA생명(AIG의 아시아부문 자회사)은 푸르덴셜그룹과의 중국 자회사 매각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자 예정대로 10월 29일에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함.
 - 최근 AIA생명이 발표한 상장계획에 따르면, 이번 상장에서는 신주발행을 하지 않고 모회사인 AIG가 발행한 주식으로 상장함.
 - 상장규모는 최소 150억 달러 이상으로 이는 올해 상장한 농업은행에 이어 홍콩 증시 상장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임.
- AIA는 외자계 손해보험회사들 중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성장세 둔화 및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진원지라는 오명으로 인해 공모가는 예상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올해 1~8월 AIA의 수입보험료는 53억 위안을 기록해 외자계 손해보험회사들 중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2위사인 중이생명(中意人壽)과 불과 5억 위안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20억 위안 이상 차이가 났던 전년도에 비해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됨.
 - 증시 전문가들은 AIA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극심한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금융위기의 진원지라는 모회사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 악화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연결되어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상장될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AIA는 최근 푸르덴셜그룹의 고위급 임원이자 전 신청생명(信誠人壽) 중국 지역 CEO였던 천자후(陳嘉虎)가 AIA 홍콩본부에 임명하고, 2005년부터 약 4년간 푸르덴셜그룹의 수석집행관을 역임한 마크 터커(Mark Tucker)를 영입하는 등 증시상장으로 모집된 대규모 자금을 바탕으로 중국 보험시장 진출에 더욱 공격적으로 임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경영보, 10/12)